

재점검의 달  
선교주일  
상반기 결산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순종이 어려운건  
내가 너무 많아서는  
아닐까?

#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June 26,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출애굽기 12:21-30 <b>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b>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송 / 310장 -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찬송가 410장)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구 민 집사, 오정은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찬 송 / 301장 -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일찬송가 460장)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셍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데살로니가전서 1:6-10

믿음의 소문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6월은 “상반기 결산”과 “재정점의 달”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예비 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새롭게 합니다.  
7월 “도약의 달”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으로 날개 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1.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2. 선교주일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상반기 결산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상반기를 결산하며, 하나님의 인도로 하반기를 준비합니다.

4.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5.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 교회설립기념주일 7월 3일 주일은 교회설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7. 특별새벽기도 교회가 설립된 7월을 맞아 2주간 새벽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6월 27일 - 7월 9일, 화-금 6:00am / 토 7:00am)

8.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오순절의 성령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교우 동정: 박진성 집사 (캘리포니아 방문 중) / 김훈태, 신실 집사 (28일 이사)

▶ 6월의 사역 - 선교주일(26) 상반기 결산 주간(23-7/2) 특별 새벽 기도 (27-7/9)

♥ 6월 ㄹㄹㄹㄹ♥ 김영은(8) 오승국(15) 이정연(24)

### 기도제목

- 1. COVID-19의 휴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를 위해
- 2. 가정의 안전이 위협받은 교우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
- 3. 이사하는 가정을 위해
- 4.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자녀와 각 자녀의 유익한 방학을 위해
- 5. Youth 사역(Joint ministry)의 성장과 2세 사역자 청빙을 위해

###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6/19	6/26	7/3	7/10
	최선윤집사	최내권집사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주일헌금위원	6/19	6/26	7/3	7/10
	구 민집사/오정은집사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6월		7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인생** / 출애굽기 12:1-14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살면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하루의 시간표, 일주일의 시간표, 한 달의 시간표, 한 해의 시간표, 그리고 인생 전체를 위한 시간표를 만들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시간표를 다 찢고 하나님의 시간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유월절을 제정하시며,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는 시기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 즉, 어떤 일보다 유월절을 우선으로 여기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며 한 해를 시작해야 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최우선해야 한다. 하나님과 만나는 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먼저해야 한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 출애굽기 12:21-30

이스라엘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며,

결국 순종한다.

우리 역시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성화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

###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 출애굽기 12:21-30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면서, 성도는 믿음의 실체를 경험한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견고함과 연약함으로 나타난다.

이스라엘도 그러했다. 더 곤고해진 삶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겪는 재앙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된 이유가 됐다.

이스라엘이 첫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는 모습은 순종과 믿음의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준다. 사실, 양의 피가 출입문에 칠해진 것으로 장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은 믿기 힘든 일이다. 전염병이 발병하면 해당지역의 모든 사람은 영향을 받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했다. 놀라운 일이다. 사람의 경험과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전의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모세의 등장으로 삶이 더 곤고해지자 모세를 원망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 듣고도 불평했다. 이런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갖고, 순종할 있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경험하며, 변화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에베소서 2:8).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 보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한다. 상식과 경험, 과학과 논리를 뛰어넘어도 믿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브리서 11:1)이기 때문이다.

출입문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구원을 얻은 사건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말은 일반인에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2천 년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음을 믿게 됐다면 순종하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화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경고처럼 이집트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듯이, 영생과 천국은 실체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힘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자.

##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삶과 신앙

### 하나님, 저는 못 합니다. 못 해요.

상담 중 한 청년에게 말실수를 한 적이 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영혼에게 질타와 대안을 던지며 상처를 남겼다. 그는 '공장' 교회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장' 그를 찾아갔다.

뇌를 거치지 않은 말들이 나왔다.

의분에 사로잡힌 정답들을 화살처럼 쏘아 맞혔다. 예수님이 아닌 공수를 만난 양은 깜짝 놀라 교회를 떠났다.

이 일이 오랫동안 후회가 되어 조심하기로 했다. 그러다 너무 조심해서 또 문제가 되었다.

교회 리더십에게 돈 문제가 생겼는데, 일방적으로 답을 쏘아주면 안 될 것 같아서 3개월이나 숨죽여 기다렸다. 그때 나는 해야 할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그가 쉽게 상처받고 떠날까 봐 조심했다.

회개를 요청했다가는 상처받을까 봐 심방을 차일피일 미뤘다. 가끔 문자로 위로와 격려 속에 우회적 조언을 담아 보내며 회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임시방편은 오래가지 못했다.

예수님이 아니라 언 발 위의 오줌을 만났던 그 역시 얼마 뒤 교회에서 사라졌다. 또 후회되었다.

기도 골방에 엎드린 나는 홀로됨에 서러웠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외로웠다. 이런 일화는 이 두 개가 전부가 아니다. 200 개도 넘는다. 후회투성이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할 정도다.

하여간 내가 나서면 일만 커진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한 일이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오곤 했다. 어려운 일이 생길때마다 문제를 향해 뛰어다녔던 일들이 후회된다.

두 팔, 두 다리를 다 걷어붙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신 기도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그랬다면 문제의 핵심이 문제에 있지 않다는 단순한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을 것이다.

송준기, 『나 홀로 예배』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